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 7. 31(수) 제한없음		
배포일	2013. 7. 31(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교무처 미래교육팀	문의	김기철 미래교육팀장(880-2077) 미래교육팀(880-2076)

제목: 서울대, 2013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 서울대학교는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고, 2013년 7월 31일(수) 1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선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 서울대는 학내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추천과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박사과정 재학생 16명,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수료생 20명 등 총 36명의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희(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씨와 윤민영(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박사과정 수료)씨가 장학생을 대표하여 연설을 한다. <연설문 참조>
- 선발된 학문후속세대에게는 등록금 및 생활비, 자료구입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재학생은 연간 2,000만원, 박사학위논문 준비 수료생은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대는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국립대로서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학문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육성함으로써 다른 학문 분야로 파급되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식 창출 및 연구에 공헌하고자 2012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을 처음 실시하였다.

□ 서울대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연구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주요 식순(2013. 7. 31 12:00~14:00,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 선정경과 보고
- 선정증서 수여 및 축사(총장)
- 사진 촬영 및 오찬 * 오찬 중에 장학생 대표 2명 연설

*** 첨부: 총장 축사 / 학문후속세대 대표 학생 연설문**

<총장 축사>

2013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로 선발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육성하고자 2012학년도부터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발한 학문후속세대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과한 촉망받는 기초학문 연구자들입니다.

기초학문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인류의 자산임은 물론, 다양한 학문분야로 파급되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결실을 맺는 자양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기초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분 모두가 참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눈앞의 영달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학문 분야에서 묵묵히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자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과 학교 차원의 지원들이 결실을 맺어, 서울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지식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기초학문 기피 현상으로 기초학문 고사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자신이 몸담은 학문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기에 우리 기초학문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 대학을 세계학문의 중심에 세우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역사에 길이 남을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분야에 깊이를 더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의연한 학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의와 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식 공동체의 창출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3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로 선발된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문후속세대 대표 연설문>

1. 경제학부 박사과정 재학생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성희입니다.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을 받게 되신 학우 분들을 대표하여 부족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학우분들과 한 마음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본부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경제학부는 사회과학분야 중에서도 학생이 가장 많고 학문을 닦는데 필요한 여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순수학문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기회비용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경제학부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계획하고 떠나고 있으며, 혹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확실한 직업을 얻기 위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 현재 한국적 토양에서 큰 모험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게 학문의 길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해주시는 이 장학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뛰어넘는 큰 격려와 희망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고 학문적인 환경이 개선되어 앞으로도 기초학문을 공부하는 많은 인재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학문을 중단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석사과정 때부터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신뢰나 유대관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만 경제학계에서도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표출되는 여러 사회 갈등 문제가 결국에는 미흡하게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 때문이라는 진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초학문의 역할과 역량의 축적은 참으로 중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학문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듯이 보여도 꾸준하게 연구에 정진할 때 학문적 토대가 튼실하게 다져지고 양질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기초학문의 발

전이 사회발전의 견실한 축으로 세워지게 될 날이 이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교와 사회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에 다짐을 드리며 저의 부족한 답사를 들어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를 베풀어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윤민영

먼저, 이렇게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수여식이라는 좋은 자리에 참석하여, 오연천 총장님의 축사에 대해 수여자 분들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게 되어 큰 기쁨이라 생각됩니다. 지식과 학문 탐구라는 서울대학교의 사명 하에,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초학문분야에의 인재를 지원, 육성하고, 이렇게 성장한 후속 세대들의 학문적 가치 승화라는 선순환이 본 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지원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기초분야에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 열심히 생활 하고 있는 학위 과정생들이, 본 지원을 통해 보다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지원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연구 성과 달성의 목표를 넘어서, 자신의 성장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속의 인재로서의 능동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또한, 뒤이은 기초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모범적인 성과 및 미래의 환원을 통한 이바지도 본 지원을 통한 선정자들이 갖는 또 다른 목표이자 과제라 생각되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이것 또한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즐겁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 후속세대 지원금을 위해 각 위치에서의 숨은 노력들이 더해져 수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도 큰 감사를 드리며, 정직하게 연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